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

순창군, 7일~8일 2일간 섬진강 마실 휴양단지서 열려

제1회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가 '시원한 강물과 푸른 숲이 만든 적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7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는 지난 2월 전북도가 주관한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에 당당히 선정됨에 따라 적성 슬로공동체가 진행하는 마을중심형 축제다.

축제가 열리는 섬진강 마실 휴양단지는 앞으로 섬진강 강줄기가 흐르고, 1km 가까이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 '건강한 슬로푸드, 행복한 삶'이라는 테마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축제장 곳곳에는 건강식과 친환경 먹거리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다. 기존 축제장 대다수가 인스턴트와 서양식 먹거리 등 자극적인 음식들 위주로 관광객을 유혹했다면, 이번 축제는 건강에 초점을 맞춰 몸이 힐링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축제장 한곳에 발효체험교육장을 마련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면서, 발효음식의 우수성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 2016년 100억원대로 4배 이상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자연발효 식초시장에 초점을 맞춰 과일식초 만들기 등으로 축제의 재미와 지역 특화산업 홍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린다.

축제장 맞은 편에 위치한 용궐산 치유의 숲에서는 명상을 통해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마련한다.

용궐산 치유의 숲에서 10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진강 천리길 요강바위 관람은 해설사와 함께하며, 요강바위에 내려오는 전설과 사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를 주관한 최훈 적성슬로공동체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우리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200% 활용하여 준비했다"면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가족들과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놀다 갈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도내 첫 시행 농촌 재생프로젝트 선정

25억원 투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

임실군이 올해 처음으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재생하여 지역특산품을 되살리고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농협창고)에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도비 10억, 군비 15억)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문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임실군 삼삼오오 청춘 햇살 창고'는 2층 중층 구조로 리노베이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춘햇살 레스토랑, 무대,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을 구성 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인재 양성, 지역 문화 교류, 주변 관광 시설을 연계한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햇살창고는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35사단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문화·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유휴시설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임실중심지로서의 매력을 회복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생동감 있고 지속가능한 임실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축산물 위생 점검 추진

남원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 까지 하절기 축산물 소비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력제 실천 여부 및 위생상태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와 위생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 246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 실시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를 우선하고, 최근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곳도 실시한다.

점검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단속해 개선조치하고, 위생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닭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체의 하절기 다소비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 거래 및 실온 유통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등의 보존·유통기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계도와 위반 업소 집중관리를 통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년을 맞이해 단오절에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한다.

남원시, 단오절 광한루원 무료개방

7일 취타대 환영공연 등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년을 맞이해 광한루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의미와 가치를 나누기 위해 이몽룡과 춘향이 만난 날인 단오절(6월 7일)에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한다.

이날 남원시는 잔잔한 물결을 만들어내는 바람속에 물속을 여유롭게 헤엄치는 잉어와 아기 원앙을 바라보며 힐링과 흥과 감성을 충족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일 광한루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과거 임금이나 현판들의 행차를 알린 취타대의 환영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화요일에는 남원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한마당'을 시작으로 판소리 공연 '광한루의 오후'가 수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목~금에는 판소리의 고장 남원에서 직접 배우는 '춘향가 한 대목'과 관광객과 함께하는 국악 퓨전 국악 '광한루 Alive~!'가 공연되며, 매주 주말에는 퓨전마당극 '흥부가 돌아왔다!'가 2시부터 펼쳐진다.

특히, 여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으로, 목~금에는 무료공연인 '신관사또 부임행차 야간공연(마당극 등)'과 '광한루원의 밤 풍경'이, 토요일에는 남원창극 '오늘이 오늘이소서'가 공연된다.

공연 관람료는 1만원이나 공연 당일 남원숙박, 남원관광시설 관광, 남원시민 등은 할인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구매시 5% 할인혜택

남원시가 올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성공적인 안착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처음 발행된 상품권 1차분이 2개월여만에 완판되어 2차분으로 35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2차 발행분 35억원 중 20억원어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최초 1만원권과 1000원권에서 3만원권과 5000원권으로 확대 발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이 조기에 완판될 수 있었던 것은 상품권이 남원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상품권 구매시 5% 할인혜택과 남원 관내 48개 금융기관에서 구매와 환전할 수 있는 편리성과 관내 2,150개의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원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가맹점은 상품권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지역자금 또한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 어치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는 상품권 훼손으로 인한 교환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들이 상품권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시민들과 각 기관 및 단체들의 관심이 남원사랑상품권의 성공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상품권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아리

이환주 남원시장, 오지마을 찾아

이환주 남원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하는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4일에는 인월면 구인월마을 봉사활동에 나섰으며, 활동에는 남원시 자장면봉사단,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LG전자 하이텔레서비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등 4개 단체와 업체가 동참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했다.

이밖에도 남원시 4개 실과소(시민소통실, 주민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담당과 120민원봉사대(국번없이 120, 핸드폰 063-6262-120)가 참여해 건강과 복지상담 및 전기·가스·농기계 점검을 통한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나섰다.

특히, 이 시장은 마을 어른들의 안부를 챙기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수렴하는 등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구인월마을 강신명 이장은 마을 진입로 포장이 마모되고 포트홀이 다량 발생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서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관련부서와 검토해 빠른 시일에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찾아가는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오지마을에 사는 어려우신 분들과 격이 없이 다가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민의 삶이 되는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섬김 행정을 실천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4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된 관촌중학교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치매파트너 양성을 위한 '치매바로알기 및 치매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치매극복선도학교란 치매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전교생과 교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확산할 수 있는 치매파트너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에 동참하고, 치매바로알기 및 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옹호적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